



제주시 원도심 산지천 '핑크 건물' 돌아오다

옛 명승호텔 새 단장 마쳐
원형 보존하며 대대적 보수
갤러리 레미콘 전시로 첫선
'핑크 플래시-산지천 31'
오늘부터 한 달간 진행



산지천31 건물 모습.

갤러리 레미콘 제공

“제주 최초의 현대식 호텔”로 문을 연 ‘옛 명승호텔’이 ‘제주시 산지로 31’로 다시 돌아왔다. ‘산지천 31’ 건물은 지난해 12월 갤러리 레미콘 기획 전시 ‘시간과 공간의 기억, 산지로 31’로 새로운 출발을 알린 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구조보강 및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됐다.

새 단장을 마친 ‘산지천 31’은 1년 만에 갤러리 레미콘의 두 번째 기획 전시 ‘핑크 플래시-산지천 31 (PINK FLASH-SANJIRO 31)’로 다시 도민과 만난다.

갤러리 레미콘은 “원형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싶은 소망과 건축법규제의 충돌 속에서 고민을 거쳐 현재의 결과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해 전시를 마치며 새 단장 후 다시 한번 전시를 기획하겠다는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며 전시 소식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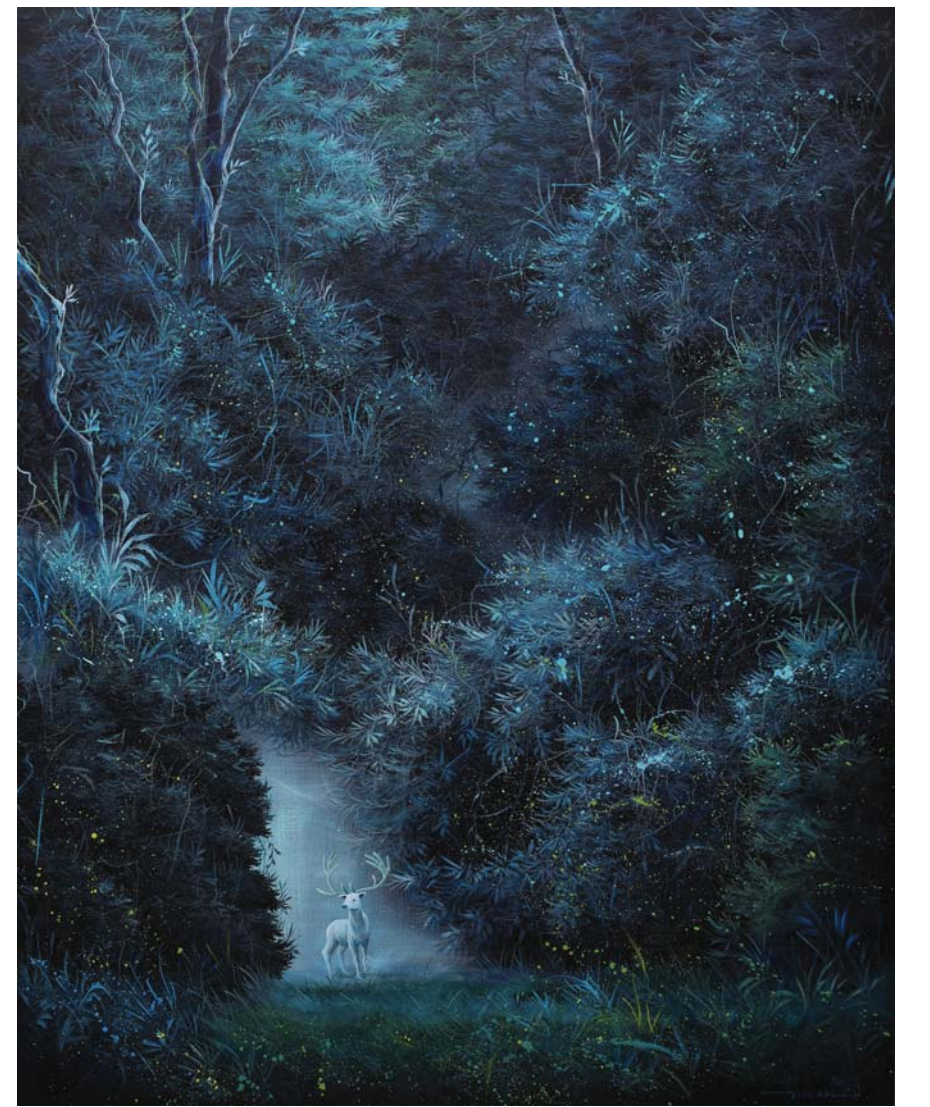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 대해 비아아트 박은희 대표가 쓴 ‘핑크에서 꿈꾸는 ‘행복한 만남’이란 글을 보면 동네 사람들은 이 건물을 ‘핑크 건물’로 부른다. 박 대표는 “핑크 건물의 실내 모습은 변화가 있지만 외형은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주변 환경에 거슬리지 않고 원래 있던 자리 그 곳 주변에 잘 스며들

게 조성이 되었다.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여겨진다”며 “예술을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예술과 함께 이 공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될 교감과 소통을 기대해보게 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등 여러 문제로 다소 무거웠던 분위기의 지난해 전시와 달리 이번 팝업 전시는 타이틀처럼 팝적인 요소들의 작품 구성과 포토존 등의 공간 기획으로 멀티미디어, 회화, 설치, 디지털 콘텐츠 등 갤러리 전 층에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엔 정명국, 이미성, 김지영, 박주우, 김승민, 이은경, 김현정, 안재홍, 고권현, 황다해, 최소영, 배효정, 강주현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전시는 22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전시기간 갤러리 4층 루프탑에선 아스콤&아일랜드팩토리과 함께하는 팝업 카페스토어도 운영된다. 오로지자



김산 작 '본향(本郷)'

작가 감성으로 재해석된 제주 본연의 모습

김산 작가 서울서 5년만에 개인전
'본향(本郷):마음이 머무는 자리'

예술꽃산양 레지던시
입주작가 7명 선정

“열리는지 몰랐다”... 관람객 확대 방안 절실

올해 첫선 무형문화재대전 만족도 조사 결과
“알고 왔다” 39% 그쳐... 재방문 의도는 높아
홍보 강화·가족단위 즐길 프로그램 보강 필요

제주의 무형문화재 가치를 재조명하고, 오롯이 무형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종합축제로 꾸려 올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첫선을 보였던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 좋은 취지에 국내·외 유산 공연, 공예 전시·시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지만 함께 가치를 공유할 시민들의 발걸음은 뜸했다.

평일에 진행된 행사임을 감안하더라도 관객 확보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실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행사의 인지도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평가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총평에는 “행사기간 3일 중 이들이 평일이었던 점과, 유사 행사의 근접 기간 개최는 많은 관람객수를 기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전 홍보의 강화, 좀 더 이른 기간의 행사개최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강된다면 정량적인 기대치도 만족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설문은 지

난 9월 22-24일 제주목 관아에서 무형문화재 대전 방문객 및 역할 참가자 중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13명이 응답했다.

‘제주 무형문화재대전’에 대해 알고 찾아왔는지’ 인지 여부를 묻은 질문에 “알고 찾아왔다”는 응답률은 39.4%에 그쳤다. 모르고 우연히 방문했다는 경우는 60.6%였다.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재미성(100점 만점 기준에 89.1), 프로그램 적절성(88.7), 사전홍보 적절성(73), 지역문화 이해(86.6) 등 전체적인 만족도가 88점, 재방문 의도는 89점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시사업 및 제언으로는 1년 연중 프로그램으로 각각 무형문화재가 장소성을 가지고 적절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과 인식과 관련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일상화 등이 제안됐다. 오로지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23년 예술꽃산양 레지던시 3기 입주작가 7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작가는 전희경(서양화), 박희자(사진), 박길주(서양화), 박한나(미디어아트), 권혜원(미디어아트), 이윤이(미디어아트), 김하림(한국화)으로, 지역별로는 도내 작가가 2명, 도외작가가 5명이다.

이들은 내년 3월부터 예술꽃산양에서 체류하면서 창작활동을 한 후 오픈스튜디오와 결과보고회 등을 선보이게 된다.

한편 재단이 앞서 진행한 공모에선 총 44명(도내 13명, 도외 31명)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의위원들은 심의평을 통해 “예술꽃산양이 위치한 지역의 장소성을 잘 이해하고 레지던시를 통해 성장가능성을 모색하는 작가에게 방점을 두고 선발했다”고 밝혔다. 오로지자

제주의 김산 작가가 ‘본향’을 주제로 서울에서 5년 만에 개인전을 열고 있다.

그의 대표 시리즈로 평가받는 ‘본향(本郷)’은 작가를 포함한 제주, 제주인의 모든 정체성 그리고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곳을 상징한다. 실제 존재하는 공간인 것 같지만 현장에서의 드로잉을 거쳐 재조합한 ‘만들어진’ 풍경으로 제주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극대화 한다.

특히 제주 신화의 영물인 백록을 비롯해 말, 꿩, 노루 등 원시자연유지를 하고 있는 동물과의 자연스런 조화를 강조해 넘으로써 현실 속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작가는 “마음으로 그려진 자연의 모습을 실제처럼 표현함으로써 아름다움이 곧 그것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한 대항적 관점이며, 무분별

한 개발로 사라져가는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깊은 마음의 심연으로부터 나오는 의집”이라고 말한다.

권주희 독립기획자(스튜디오216 대표)도 “김산의 작품은 제주라는 지역, 그리고 그곳에서 형성된 문화가 명확한 지표로 역할하며 작가의 상상력, 기억력과 같은 탈감각적인 능력이 통합되어 가상의 공간을 형성한다”면서 “이것은 인간이 본향에서 삶의 양식과 태도를 찾아가는 여정이며 관념적 서사와 환상의 조화가 이뤄낸 문화적 풍경”이라고 평한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풍경 속의 사회적 흔적을 그려내는” 작가의 작품 20여점을 만날 수 있는 초대전 ‘본향(本郷):마음이 머무는 자리’는 서울 종로구 갤러리 소공헌에서 내년 1월 7일까지 열린다. 오로지자 ejoh@ihalla.com

수축상
CONGRATULATIONS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김대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해양수산연구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처가일동
이효선 문정옥 이창은 이환주

수축상
CONGRATULATIONS

대한적십자 창립 105주년 기념 회원 유공장 명예장 유공봉사대상 국무총리표창



한석창
(제주시초등학교 9회 8대 회장)

대한적십자 창립 105주년 기념 회원 유공장 명예장과 전국 자원봉사자의 날 유공봉사 대상으로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초등학교 제9회 동창회
회장 고병석 외 회원 일동

수축상
CONGRATULATIONS

대통령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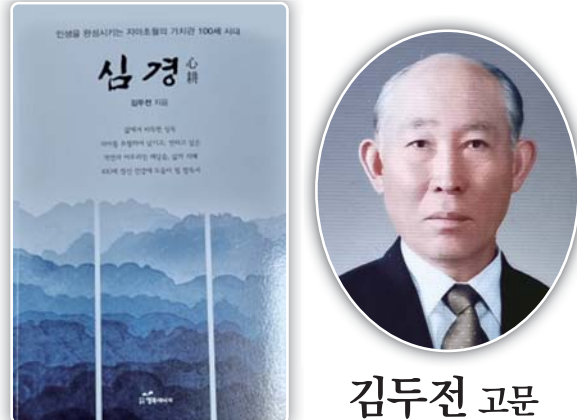
최정희
(공립제주특별자치도공관어린이집원장)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회원 일동

발축간
CONGRATULATIONS

교양도서 심경(心耕)



김두전 고문

김해김씨감무공파제주도종친회 김두전 고문님의 100세 시대 교양도서 심경(心耕)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더욱 발전있기를 기원합니다.

김해김씨 감무공파 입도공파 3세 무선공후손종친회
회장 김상봉 외 종친일동